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지〉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말·행·뜻 자기 마음자리서 다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잘났든 못났든 나쁜마음 없이 지극하게 하면 자신과 세상 법계가 다 알아요

여러분과 도반으로서 이렇게 끝없는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찰나에 헛을 수가 있겠지만 영혼의 근본 뿌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길 가끔 합니다. 콩씨는 콩싹을 면치 못하고 콩싹은 콩씨를 면치 못한다구요. 이 세상 이치가, 일체 만물만생의 이치가 다 그러하거늘 때로는 가슴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죽는 게 원통하고, 산는 게 복잡하고 외롭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린애 적이 있었고, 또 젊었을 때가 있었고, 늙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애 적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고, 젊었을 땐 젊은대로 또 그렇게 살아왔고, 나이가 좀 들면 드는대로 부모 생각도 나고 자식 생각도 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를 어떻게 지내야만 될 건지, 내가 아무 때에는 참 그렇게 안해야 될 것을 그렇게 했어! 하는 생각도 나고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모의 그 뜨거운 정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부모가 돼서 늙어보니까 말입니다. 아마도 젊은 혈기로써 살아나갈 때는 그런 걸 다 일일이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점점 지혜가 생기고, 철도 나고, 부모의 은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식들에게는 은혜를 갚는 효도와 교훈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만 끝없는 세월을 빛이 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근심 걱정도 생기겠지요.

예전에 그 무슨 백화점인가 하는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모두가 욕심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들이죠. 욕심이 없다면 그렇게 빚어지지 않을 겁니다. 또 한가지는 좀 더 남의 아픔을 나 아픔과 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생각하고, 모두 내 아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진실하게 상대를 둘 아니게 생각했을 때는 잘 베풀어 줄 수가 있고, 잘 리드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상대방은 내가 아니라는 생각에 눈이 멀고 귀가 뜨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란이 일어나고 홀딱 다 없애는 이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도반으로서 걸림이 없는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찰나에 인간의 삶이 다해갑니다. 몸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씨앗이라는 것은 종자가 천차만별이며 모습도 천차만별입니다. 종자라는 그 두 글자는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차원이 큰 콩씨다, 아니면 아주 작은 콩씨다 이렇게도 생각한다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작은 콩씨를 큰 콩씨로 만들 수도 있고, 우주를 덮을 수 있는 종자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조그마한 종자에 우주 삼라만상을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종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신 뿌리에 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놓느냐고 합니다. "어떻게 놓습니까? 놓을려고, 놓을려고 애를 써도 놓아지지 않습니다"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본래 콩씨와 콩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므로 콩씨가 콩싹으로 화하려면 수분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합니다. 가운데 부분들은 다 놔두고라도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자기가 싹으로 화합니다. 싹으로 화하는데 그 싹이 어디 가서 내 콩씨를 찾겠습니까? 네? 과거로 돌아가서 찾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로 찾으러 가겠습니까? 형상에게 내 뿌리, 씨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름에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스님들의 고깃덩어리한테 달라고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달라고 하며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콩씨만은 바로 자기 몸뚱이를 버려서 콩싹을 만들어서 그 싹이 화하게 되면 또 콩씨를 열리게 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도 아닌 수백 수천 개 씨를 맡입니다. 그러니 다 먹이고도 그 종자는 남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익중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살아나가면서 모두 남과 나와 둘 아니게 이익을 준다는 뜻이죠. 여러분 몸뚱이 속에도 헤아릴 수 없는 이익중생들이 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먹어도 같이 먹고, 들어도 같이 듣고, 봐도 같이 보고, 사랑을 해도 같이 하고, 항상 같이 존재를 하는데 그걸 생각하자면 눈물이 날 지경이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하니까요. 그런 자기 중심의 막대기를 믿지 않고 어딜 믿습니까?

그림 · 최주현

육신은 배우처럼 역할만 다할 뿐 마음속 주인이 이몸 끌고 다녀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허밍하게 그냥 저 구덩이에 산 채로 묻히게 되는 것도 콩씨가 콩싹을 다스리고 나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시장을 봐오는데 그날따라 거기 가기 싫어서 딴 데로 갔다고 합니다. 왜 가기 싫었을까요? 그건 콩씨와 콩싹이 서로 통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몸뚱이를 자기라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자기 뿌리만이 자기 몸을 이끌어가는 선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뚱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거기에 줬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한테 콱 맡겼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만약 이리로 가면 죽게 됐을 때, 자동적으로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들죠. 그건 왜냐? 자기 마음속에 주인이 있어서 자기 몸뚱이를 끌고 가기 때문이죠. 즉 자기 몸뚱이자 시자며, 시자이자 바로 자기입니다. 누구라도 '나는 그렇게 잘못되는 길을 걷지 않겠다' 해서 걷지 않아지는게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의 차원에 따라서 이 몸뚱이 속에 악업, 선업 그리고 그 중에 유전성 · 인과성 · 영계성 · 세균성 · 업보성 이 다섯 가지가 주둔해 있다가 차례차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례차례로 나오는데다 새로운 걸 되입력하면, 앞서의 것이 없어지면서 또렷하게 자기를 리드할 수 있는 심봉이 보이는 거죠. 즉 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장이 자기 몸뚱이를 자꾸자꾸 이끌어가는 거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이 잘못된다 싶으면 술을 먹기 싫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또 술 마실 일이 있었는데도 그 술을 안마셔도 되게끔 급한 일이 생기도록 만들기도 하구요. 여러가지 문제입니다. 이 자기 주인공이란 어떻게 다 감사함을, 어떻게 감사하다고만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이지 말 한마디 못하도록 감사함이, 그 감사함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해서 '자아 부처'라고 했고, '자성 불'이라고 했고, 부처 아님이 없다고 한 도리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꿈도 현실이고 현실도 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뚱이는 항상 영화 배우들과 같아서, 자기가 소임 맡은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하는 거를 가만히 보세요. 어떤 배역을 맡는다 하더라도, 어떤 가난하고 나쁜 배역을 맡는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배역대로 해냅니다. 그건 왜냐. 막이 내리면 끝이니까 끝인 줄 알고 되돌아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배역을 맡아서 자기 소임을 다하고는, 막이 내리면 끝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잠시 배역을 맡았을 뿐이니까 자기 맡은 바를 그렇게 지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고 배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역을 맡았으면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모르든지 알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지극하게 나쁜마음 갖지 말고 모두가 내 스승으로 알고 아만을 떨지말고, 있다고 거만 부리지 말고, 없다고 비굴하지 말고 항상 지극하게 진실하게 해나간다면, 우주 법계에서 다 알아요. 직결이 돼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아나가는 것도 우리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우주법계가 알고 있는 것을요.

그렇게 세상이 낱낱이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만 있으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보지 않는 줄 알고, 듣지 않는 줄 알고, 남의 흉도 보고 또 말없이 말없는 도둑질 아닌 도둑질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만좌(滿座)중에 다 보고 있는데서 훔쳐가는 것과 같고, 만좌 중에 있는데서 흉하는 것과 같고, 만좌 중에 앉은 데서 모두 이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갖은 악의적인 일들을 행과 말과 뜻으로 다 하죠. 그러나 그 마음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력이 다 되구요.

나는 그래서 저 허공도 없고 세상도 없는 가운데 작대기로서 스승을 삼고 이날까지 왔습니다. 그 작대기인 스승이 너무나 감사해서 부처님 모셔놓은 데 가서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높기는 뭐이 높아, 당신이 오히려 불쌍해서 죽겠어. 당신은 적든 크든, 벌레든 사람이든, 돌이든 흙이든 모두의 심부름꾼과 같이, 항상 밑을 씻어주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당신이 뭐가 높아. 이 도리를 알게 한 것도 당신인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로 다 하리까?"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안다고 자만 갖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마음의 고개를 숙이고, 어떠한 걸 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길을 가다 나무 한그루 돌 하나를 봐도, '허허, 저런 모든 생명들이 아니고 저런 모습들이 아니라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배웠을까, 어떻게 저런 게 있는 줄 알까, 저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았을까' 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감사하게 생각하다 보면 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놓아지지 않는다' 이런 거, 왜 놓아지질 않느냐. 항상 말하듯이 혼자 보는 것도 없고, 혼자 먹는 것도 없고, 더불어 같이 먹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같이 움죽거리고, 자도 같이 자고 그러시죠?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고 앉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들게 되고, 이러는게 누구 덕으로 그렇게 됩니까? 모두 여러분의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뭉쳤기 때문에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뭉쳤기 때문에, 열 손가락이 다 들어가야 들 수 있는 무거운 물건이 있다면 이 손가락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걸 못 들게 됩니다.

그러듯이 여러분의 그 한 몸뚱이 속에 세계가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위 나라가 있고, 장 나라가 있고, 심장 나라가 있고, 척추 나라가 있고, 척수 나라가 있고, 식도 나라가 있고, 이런 나라가 많이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92)

'나' 하나 죽는다면 아무것도 붙을자리 없다.

내세울 게 없어야 벗어나지 내세울 게 있다면 벗어 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첫째도 몰락 놓아야 하고 둘째도 몰락 놓아야 한다. 다 놓는다는 것은 내세울 '나'가 없다는 뜻이다.
다 놓아야 윤회의 원통을 벗어난다. 하나조차도 세울 게 없을 때 도는 있다. 나라고 세울 게 없을 때 도가 있다. 그렇게 내세울 게 없기에 오히려 둥두렷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 '나의 것'이라는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러자면 일체 경계를 둘로 보지 말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 버리는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인공은 비유컨대 뜨거운 용광로와 같아서 거기에 던져 넣은 모든 무쇠, 잡쇠, 고철이라도 녹여 버린다. 녹여서 순금을 만들어 낸다. 변치 않는 영원한 순금을 만들어 낸다.

내가 공부를 한다, 내가 일을 한다, 내가 잘했다, 내가 주었다, 내 것이다, 나이다 하는 아집 · 아만 · 아상 · 욕심을 쑥 빼어 놓아라. '나'가 들어가면 이미 걸린 것이니 당장 죽음이 눈앞에 닥쳤다해도 탁! 넘어설 줄 알아야 제대로 놓는 게 된다. 그쯤 되어야 거기에서 생수 맛을 볼 수 있고 부와 자가 상봉을 할 수 있다.
유위법에 한 치라도 착을 두었다 하면 부처를 이룰 수 없다. 부처를 이룬다는 생각마저도 놓아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착이다.

참된 수행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 없다. 중생으로서의 자기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중생인 나로서 세상을 보지 않고 나의 근본인 참 나로서 세상을 보며 그 입장에서 너와 나의 구별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우주에 자기를 세우려는 것은 마치 천체의 운행을 멈추게 하려고 허공에 말뚝을 박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다' '나는 다른 존재와는 별개로써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그러한 '나'는 결단코 없다. 허공에 무엇을 세울 수 없듯이 본성은 본래로 텅비어 '나'를 세울 데가 없다. 그러므로 섣부르게 '나'를 세우려 하지 말고 마음의 큰 바다에 '나'를 던져 버려라. 그것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도를 벗어나는 길이다.

나의 소유, 나의 생각, 나의 명예,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나를 통 속에 가두고 잇다. 중생들은 그런 것들을 경계에 부딪혔을 때 싸워나갈 수 있는 방벽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갈수록 점점 높고 두텁게 쌓으려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 마음은 위축되고 추워지는 법이니 결국 그러한 방벽이란 나를 보호하는 방벽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방벽, 나의 감옥이 되는 것이다.

내가 공해서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온종일 '나'를 붙들고 헤매다 어느새 해는 저물어 저녁이 되니 그만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게 된다.

'나'가 있다는 생각이 나가 없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낳는다. 죽음이 그래서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다.
'나의 것'이 있다는 생각이 나의 것이 없는데 대한 불안과 공포를 낳는다. 소유에 집착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참 나는 생도 멸도 없다. 생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쉼 없이 찰나 찰나 나투며 돌아가기 때문이다. 생멸이 없으니 '나' '나의 것'이 있음도, '나' '나의 것'이 없음도 없다. 오직 나툼일 뿐이다.

'나' 하나 죽는다면 아무것도 붙을 자리가 없어 욕심을 낼 것도 착을 둘 것도, 남을 원망하고 싸우고 할 것도 없다. '나'가 살았기에 나로 인해 밖에서 들러붙고 안에서 일어나고, 착이 붙고 욕심이 붙는다. '나'를 불바퀴에 그대로 내동댕이친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늘이 무너져 내리든지 내가 뭉개지든지 상관 않고 무조건 내맡겨야만 업식을 항복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가 없기에 나의 불기둥은 우주와 직결된다.

저절로 너 · 나가 없고, 사견을 여의고, '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지 '아상이 없어져야 할 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없어지지 않는다. 만 가지 법을 손으로 주무르고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한 줄을 몰라야 하니 그것이 홀연히 깨우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협 찬 : 심 규 하